

전주시 '예술교육 국제포럼' 개최

'글로벌 도시' 전주 위상 강화

전주시가 '2019 예술교육 전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 지식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지속가능한 예술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의 명사들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앞서 전주는 무형유산의 풍부한 도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슬로포럼&어워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세계무형유산포럼을 매년 개최하며 세계 속의 전주로 도약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국제포럼이 더해지면 글로벌 전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제포럼 도시 전주를 있게 한 전주 3대 포럼을 살펴보자.

▲전 세계 슬로운동 가치 논의의 장 '전주세계슬로포럼'

전주는 지난 2016년 인구 6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시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세계가 인정된 국제슬로시티다. 이는 앞서 2011년 조선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재와 일제하의 유산인 700여 채의 한옥이 군락을 이룬 세계적인 관광지 한옥마을이 세계인들을 매료 시키며 국제슬로시티로 인증된 이후 재 인증된 것이다.

세계슬로포럼 ·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 무형유산 포럼 등 개최

이는 전주시가 한옥마을이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느낌운동의 가치 확산을 위해 인콰리로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2016년 국제슬로시티연맹 국제조정위원회를 본고장인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 최초로 전주에서 개최했다. 또한 그 이듬해부터 세계 슬로운동가들이 슬로시티정책과 슬로운동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인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를 개최, 이후 전주에서 슬로포럼이 매년 열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는 2019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서 2019 국제슬로시티 어워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책' 부문에 팔복 예술공장과 전라감영 복원 프로젝트로 공모에 참여, 최고점을 받아 오렌지 달팽이상상을 수상했다. 오렌지 달팽이상상은 국제슬로시티연맹이 30개국 252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

구하는 슬로시티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도시에게 수여하는 최고상이다. 시는 수상을 통해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 전주의 위상을 슬로시티 본토와 전 세계에 알린 셈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국제슬로시티연맹 프랑스 총회에서 '지역주민 마인드와 교육정책' 부문 어워드 수상에 연이은 쾌거로 국제슬로시티를 이끌어나가는 세계 선도도시로 위상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국제 사회적경제 선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시는 사회적경제 활동 확산을 위해 국제적 연대협력기반을 조성하며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로 유명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를 국제생태문화협회인 'Local futures', 전 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주최하며, 사람·생태·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와

기관, 현장기업가 등이 대거 참여해 '지역화를 위한 전략'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고민과 해법'을 공유해오고 있다.

행복의 경제학은 경제의 지역화를 말한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의 자급자족을 통해 경제규모를 줄이게 되고 또 대기업이 아닌 많은 개인과 소상공인에 경제력을 분산시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복담론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지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상대적으로 덜 행복 한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행복을 더불어 공유하여 시민 개개인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실제, 시는 지난 2014년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국 단위 조직

인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설치해 공정 경제 기반을 구축해왔으며, 또 모든 시민들이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전주형 행복지표를 개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 행복을 위한 전주 복지정책도 널리 인정을 받아 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도 △사람중심의 복지공동체 형성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 도시 구현 △능동적·적극적 복지시스템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의 우수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세계 무형문화의 중심 '세계무형유산 전주포럼'

세계 무형문화의 중심도시 전주에서 개최되는 세계무형유산 국제포럼은 전주의 글로벌 자산이다.

전주는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계승해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도시다. 여기에 국립무형유산원과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무형문화유산도시다.

전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세계무형유산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전승과 활용에 관한 국제적 담론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세계 무형문화유산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18년 제1회 세계무형유산포럼을 시작으로 2년마다 포럼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세계 각 국가와 무형유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협력방안을 마련하며 대한민국 대표 무형유산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무형유산 도시로 발돋움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제포럼 전주 개최를 통해 전주다운 고유한 문화와 정신들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이제 전주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닌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주의 문화영토를 계속해서 넓혀 좋은 영향력과 아름다운 영감을 주는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경천에서 활짝 핀 코스모스 군락



26일 원주군 경천면 용북리 구룡전변에 조성된 코스모스 군락지에 꽃이 활짝 피고 있어 운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만큼 장관을 이루고 있다. /원주=이중복 기자

중고 가전 · 가구 무상 지원

전주시 완산구가 올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중고 가전 가구 무상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이사업은 구와 (주)산부 재활용센터가 각계에서 기증받거나 수거한 중고 가전제품 및 가구를 수리 정비해 매월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품목은 세탁기 냉장고 TV 책상 의자 등 중고 가전 가구이며 신청 대상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으로서 필요한 시민은 완산구 자원위생과(220-5450)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사이버범죄 예방 캠페인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사기·메신저 피싱,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상에서의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갑스 회원들과 사이버수사대 직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심각해져가는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하여 전북 현대 FC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리플릿을 배포하면서 간단한 게임을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홍보했다. /강석훈 기자

“김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신속구제”

조국 법무부장관, 권리구제 방안 검토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권리 구제 등 현안 관련 지시를 잇달아 내놓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이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다. 지난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故)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들을 포섭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됐고,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경

감 등 수사관들로부터 서울 남영동 대공본실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고 그 과정에서 조카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사망, 최을호씨는 사형을 당했다. 최낙교씨는 9년을 복역한 후 석방됐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지난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조 장관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 치유를 위해 조

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항소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 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최근 발생한 '수원 노래방 초등학생 집단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관할 관리·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이 사건은 중학생들이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한명을 폭행한 사건으로, 페이스북 등 SNS에서 피해 학생이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학생 전담 보호관할관' 도입 ▲보호관할관 증원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뉴스IS

전주천변에 하천형 정원 조성

완산구, 내년 초까지 한벽보 주변 정비사업 추진

천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엔 나선 전주시가 전주천변에 하천형 정원을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는 내년 초까지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완산구 동서화동 전주천 한벽보 좌안에 약 3,300㎡ 규모의 첫 하천형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

라고 26일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는 열섬현상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전주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생물의 다양성이 복원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천 한벽보 주변은 천연기념물

인 수달이 발견된 곳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잘 보존돼 자연환경과 주변조망이 우수한 하천이다.

시는 실시계획을 거쳐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하천형 정원 조성을 포함한 한벽보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서학동예술마을을 잇는 거점공간이자 시민과 여행객을 위한 휴식·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효철 기자

상반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전년비 64% 감소

전북경찰이 실시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이 대대적인 성과를 보였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시 완산구 우림초등학교에서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도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시민경찰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고 어린이 교

통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및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집중단속 전단지를 제작·배부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전북경찰은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국민 관심도 고취로 상반기(1~8월)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64.7% 대폭 감소시켰다. /강석훈 기자

가학적 성행위로 내연녀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내연녀에게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가해 과다출혈을 일으키고 숨질 때까지 방치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모(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 B모(42)씨를 상대로 손과 도구를 이용,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유사성행위 과정에서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훼손시켜

과다출혈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정신을 잃은 B씨를 방치해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죽을 줄 몰랐다. 유사성행위도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싸움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A씨가 옷을 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B씨의 부검결과와 반항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하고 이로 인해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강석훈 기자

예수병원에 장애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

보건복지부서 선정돼

전북도 장애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재활치료를 책임지게 될 예수병원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가 설립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전주 예수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은 2019년 10월에 예수병원 제1주차장 오른쪽에 위치한 부지 2,221㎡에 국비 36억, 지방비 36억 등 72억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를 착공해 2021년 10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예수병원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

층 등 총 3개 층에 낮 병동 21병상, 전문치료실 15개, 외래 진찰실 2개 등의 필수재활치료를 위한 첨단 재활시설을 갖추게 되며 재활의학과 전문의 의사 2명을 포함한 22명의 전문 의료진이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를 전담하게 된다.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 이 전라북도 장애 아동 1만명의 재활치료를 전담하게 될 전북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에 선정되어 기쁘다. 198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재활병동을 운영한 예수병원의 전국 최상위 수준의 재활치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